

宮中遺物 保存管理

趙炯庸*

目 次

I. 序言	9. 도자기
II. 유물현황	10. 무구류
1. 서화류	11. 노부류
2. 악기류	12. 기타류
3. 어보책류	III. 遺物保管管理
4. 현판류	1. 遺物管理
5. 제기류	2. 遺物保存處理
6. 의상류	3. 遺物補修
7. 조각류	4. 資料蒐集
8. 가구류	IV. 結 論

I. 序 言

昌德宮은 朝鮮王朝 3代 太宗때 離宮으로 지어진 宮闕로서 壬辰倭亂등으로 宮殿이 여러번 燒되어 14代 宣祖때 부터 復舊하기 始作하여 15代 光海君때 王宮으로 使用된 뒤 約 300餘年동안 歷代 諸王이 政事를 보살폈으며 지금은 仁政殿·周圍廻廊을 비롯하여 大造殿과 熙政堂 等 宮內의 主要 殿閣들이 남아 있으며 昌德宮內에는 13棟 後苑內에는 28棟, 等 모두 41棟이 남아있다.

昌德宮은 現存하는 朝鮮王朝 五大宮중 宮殿建物의 原形이 가장 잘 保存된 宮으로 朝鮮王朝 歷代 君王과 宮中에서 使用하였던 많은 遺物을 保有하고 있다. 이들 遺物에 대한 조사정리를 關係專門家의 諮問과 지도로 재분류 정리하고 유물 하나 하나에 固有番號 標識板을 製作附着하여 재질별로 분류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궁중유물은 관리하는 關係公務員이나 특정학자만이 볼 수 있는 유물로 인식되어서 일반인에게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창덕궁에서 소장하고 있는 궁중유물현황과 보존관리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 昌德宮社務所

II. 유물 현황

창덕궁에 소장된 유물은 서화류 362점, 악기류 12점, 어보책류 20점, 현관류 1032점, 제기류 1505점, 의상류 2580점, 조각류 1960점, 가구류 1817점, 도자기류 2997점, 노부류 548점, 무구류 99점, 기타류 7198점으로 모두 12종 20,130점이 있다.

1. 서화류

창덕궁에 소장된 서화류를 크게 국적별로 구분하면 한국화가 대부분이며, 일본화도 3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서화를 시대별로 보면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며 20세기 이후의 작품도 있다. 궁중 소장유물은 거의가 작가, 연대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궁중의 도화서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0세기이후 작품들은 작가가 기재되어있는 작품도 더러 접할 수 있다.

서화류는 모두 362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병풍 152점, 벽장문 27점, 가리개 39점, 벽화 6점, 그림족자 19점, 어진 7점, 영정 35점, 사진 57점, 기타 20점으로 되어있다.

병풍을 곡(폭)수별로 보면 2곡·4곡·6곡·8곡·10곡·12곡으로 되어있으며 크기는 높이 330cm, 길이 544cm되는 대형병풍들도 있다.

병풍의 내용은 임금님의 용상 뒷편에 장식되는 일월5악도를 비롯하여 십장생도, 모란도, 문고도, 기명절지도, 화조도, 무예도, 책거리도, 신선도, 진연도, 제례의궤도, 조회도, 와당도, 자수병, 소병풍, 정조대왕능행도 등이 있으며, 벽장을 장식하기위하여 미단이문을 4곡병풍식으로 만든 벽장문은 일월5악도, 십장생도, 천도장생도, 군록장생도등이 있으며 액자로는 거동시에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되는 일월5악도, 전장조어필애견도, 천왕천녀도등이고, 벽화는 회정당에 금강산을 배경으로한 금강산만물초승경도와 총석정절경도, 대조전 거실에는 봉황도와 군학도, 경훈각 거실에는 삼선관파도와 조일선관도등이 있다.

두루마리(권)로 되어있는 그림중에는 가례반차도가 있다. 어진에는 영조대왕, 철종대왕, 고종황제의 어진등이 있으며, 영정에는 성명이 밝혀진 강세광등 11인의 초상화와 성명이 밝혀지지않는 영정을 구부린다. 태조·고종·순종·영친왕·윤비·엄비·홍선대원군·덕혜옹주·고종인산·순종인산·윤비인산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서화류에는 병풍이 많은데 이것은 왕실에서 장식 및 거울에 방한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2. 악기류

조선시대 악기는 국가적인 행사에 필히 수반되었으리라 여겨지는데 현재 창덕궁에서 소장하고있는 악기류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적·고·금·편경등 12점 밖에 없으며, 제례에 사용하였던 악기는 종묘에 보관관리되고 있다.

3. 어보책류

조선26대 순종때 高宗의 繼后인 윤황후 책봉과 완왕(육)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책을 만든 금책 2점, 왕세손·세자 책봉시 만든 죽책 2점·왕세손·세자가 돌아가셨을때의 애책 2점,

영조께서 정조에게 내린 유서 1점,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다녀올 때 가지고 다니던 부협 1점, 그밖에 어제유서통 2점, 유제서통 3점, 금책함, 축책함, 시책함, 인함등 20점을 소장하고 있다.

4. 현판류

창덕궁에 보관하고 있는 현판은 267점밖에 없었으나 1986년 5월 13일 창경궁에서 소장하고 있던 현판을 이관받아 현재 1032점의 현판류를 소장하고 있다. 1982년 유물정리시 전문위원 황천오씨가 현판류 분류작업때 현판, 편액, 주련 3가지로 분류하였다.

궁중건물등 각건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을 현판으로 하고, 각건물의 내부에 걸어 놓은 것을 편액, 각건물의 기둥에 장식으로 부착된 것은 주련으로 분류하였다.

현판류는 글씨체가 다양하며, 작가 또한 임금으로부터 각계 각층에 이르고 있으며 현판의 내용 또한 각건물의 명칭이나 건물의 유래를 적은 序·記·上樑文등과 왕의 분부나 敎諭를 적은 傳敎·綸音·飭諭·古詩·名言·其他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5. 제기류

창덕궁에 소장된 제기류는 1505점으로 재질별로 구분하며 은제, 유제, 목제, 사기, 옥제, 석제, 백동제, 죽제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은제에는 술·바리·탕기·신선로·접시·식기·잔·주전자·국자·망료반등이 있고, 유제에는 모혈반·쟁반·주전자·촛대·향합·잔·향로·식기·접시·잔받침·산자우리대·다식우리대·뚜기·망료집개등이며 목제에는·잔·작·식기·중계우리대·다식우리대·약과우리대·산자우리대·흑뚜기·홍뚜기·촛대·賀子·罇床·龍句只·祝板香爐床등이 있고, 사기에는 찬기·탕기·면기·굽접시·접시·굽보시기·굽대접·굽종자등이 있으며, 청동제, 옥제, 석제, 백동제, 죽제에는 香爐등이 있다.

특히 은제제기는 선원전에 덕망이 높은 선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생일과 정초에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6. 의상류

의상류는 복식·보관모장신구보자기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복식에는 자적용포·청천의·홍천의·앵삼·원삼·활옷·몽두리·상·흑초의·백초의·적초의·청삼·대례복·소례복·학창의·도포·상복·홍직령·두루마기·동달의·전복부장복·예고·참위복·연미복·흑색외투·다갈색외투·후수·스란치마단등이 있고, 관모에는 익선관·금관·제관·정자관·백사모·흑립·초립·전립·병거지·탕건·평정건·기수건(청·황·홍)망건등이있고, 장신구에는 기린홍배·운학홍배·각대·너울·떠구지·떨장·머리꽃이·은제비녀·목잠·도투락댕기화잠·광다희·장도끈·도포끈·술끈·은도금방울노리개·말뚝매듭노리개·연화향낭노리개·환춘향·향낭·협낭선낭·수저집·장도집·보자기에는 봉황보노리개보·청자색보·황낭색보·청홍색누비보·목판보·백색보·홍색보·황색보·상보·영정보·누비보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갑옷·주정갑·쇄자갑·철정갑·투구등이 있다.

7. 조각류

조각류에는 조선시대 규장각에서 사용하였던 보소당 印存을 비롯하여 왕세자나 왕세손책봉시 제작되었던 印寶등 1960점이 있다.

조선상서원에서 발행하여 관리들이 지방출장때 역마징발에 사용한 마패, 정상품의 관원이 밤에 순찰할 때 갖고 다녔던 순장패, 각 고을 관아의 객사에 모셔놓은 闕자를 새긴 闕牌와 殿자를 새긴 殿牌, 조선시대 16세 이상이된 남자가 차고다니던 號牌, 군대를 動兵할 때 표적인 兵符, 밤에 城門을 통화할적에 갖고 다니는 符驗, 범인을 잡을 때 사용한 通符·傳令牌, 말에 관한 항목과 그림을 곁들여 풀이한 수의학고전인 馬經諺解板 그밖에 궁중에 사용하였던 각종 무늬를 새긴 목제판이 있다.

8. 가구류

궁에서 사용한 가구류는 나전칠기를 비롯하여 화각·주칠·죽제·초고·석제·지장·금·은·동·유등으로된 각종 생활용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 19세기 이후의 후기 작품이 대부분이고 또한 명·청를 통하여 들어온 칠보와 고도로 발달 한 서양집기들이 적지않다.

나전칠기에는 평상·침대·농·탁자·이층장·머릿장·체경주칠에는 서장·문갑·이층장·삼층장·소반·용문주칠함·원반·목판·함·상자·연상·인뒤옹이등이 있으며, 화각에는 삼층장·함·화각실패·화각밀대·자등이 있으며, 죽제품에는 손가방·발·가마발·상자·필통·황용문용수석등이, 초고에는 초석·화문석·황용문용수석·용문용수석·만화문용수석·청홍문용수석·용수석·신여석·신위석·장초석·석제품에는 석조연·약연·화로·등잔·곱동술·황옥제용기등, 지장에는 지함·지농, 금제에는 상감기법으로 제작된 용기와 銀을 재료로한 용기들이 있다.

유와 등제에는 주방용기에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용기들이 놋쇠와 동으로 만들어져 있다.

불란서 제품으로 여겨지는 각층장과 대리석이 부착되어 있는 탁자, 화분대, 각종의자 등이 있으며, 화류목제품으로 쌍용의자·침대·평상·탁자등이 있다.

궁중에서 오락으로 즐기던 투호, 각종 등기(燈器), 명·청에서 전해진 각종 칠보용기들은 조선말엽의 궁중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9. 도자기류

창덕궁에 소장된 도자기류는 2,997점으로 宮中傳來품과 일제시대에 궁중에서 사용하였던 生活用 食器 등의 그릇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도자기중에는 중국제 靑·白磁주전자를 비롯하여 일제시대 王室에 진상 및 구입하였을 대형 일본제 화병들이 여러점 있다.

우리나라 도자기로는 고려시대의 靑磁廣口瓶·大盤·대접·瓶·주전자등이 있으며, 白磁로는 壺·瓶·장군·胎항아리·주전자·대접이 있으며, 그중에서는 주목되는 白磁, 胎항아리는 15세기 후반경의 초기 백자로 만들어진것으로부터 20세기경에 이르기까지 18점의 胎항아리가 있다.

청화백자로는 주전자·함·壺·접시등이 있는데 이중 雲龍文항아리는 궁중에서 잔치 및 제사용의 술이나 꽃을 꽂아 사용하였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경 雲龍文항아리이다.

일제시대 王室에 사용하였을 근대화된 생활용식기 및 각종 그릇들이 서구화와 일본화된 그릇이 숫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중 특이한 것은그릇에 “李花”문양을 새겨넣은 것이 상당히 많다.

10. 무구류

창덕궁에 소장된 무구류는 99점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刀劍에는 傳御刀, 四寅斬邪劍, 三寅劍, 環刀, 佩月刀, 靑龍刀 등이 있으며, 銃砲에는 萬曆 19년銘 小銃筒, 雙勝字銃筒, 三眼銃, 手砲, 甲寅銘砲, 乙丑銘砲, 木架砲, 康熙 16年銘 4號 佛狼機, 砲彈에는 空線式砲彈, 활에는 弩弓, 角弓 그밖에 箭筒, 동개, 방패, 信前과 矢架 등이 있다.

11. 노부류

노부는 儀仗을 갖춘 임금의 거동때 行列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노부에는 大駕, 法駕, 小駕 鹵簿가 있는데, 大駕 鹵簿는 詔刺를 맞이할때와 社稷과 宗廟에 친히 祭享할 때, 法駕 鹵簿도 임금이 文昭殿, 先農에 祭享하고 國學에 행차하여 釋尊禮를 행하고 射壇에서 활쏘기를 할 때나 武科의 殿試에 射壇에서 활쏘는 것을 구경할 때, 小駕 鹵簿는 陵에 參拜하고 활쏘는 것을 관람할 때나 평상시의 대궐 문밖에 거동할때에 이를 사용하였다.

창덕궁에 소장한 노부류중 의장기는 육정기·가귀선인기·백택기·유린대기·유린기·삼각기·호기·청룡기·황룡기·황룡대기·천마기·천록기·홍문대기·현무기·주작기·공작기·오색금룡기·감우기·벽봉기·적봉기·의봉기·백학기·운학기·사득기·오성기·귀성기·북두칠성기·좌독기·고초기·표이기·팔괘기·팔봉기·금자기·고자기·금고기·청도기·출경기·팔필기·문기순시기·령자기 등이 있고 의장물에는 작선·봉선·치미선·용선·파초선·소선·황선·흑선·봉단선·용봉단선·쌍룡단선·청단선·홍단선·홍양선·황양선·자방잔·황산·칠봉개·홍개·청개·흑개·백초당·청룡당·주작당·금립과·금횡과·은횡과·금등자·은등자·금월부·은월부·금장도·은장도·삼지창·장창·당파 등이 있다.

輦에는 고종황제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9점이 있으며 사인교·채여·향정·남여·평교자·초현·주정소·어마차·어차 등을 소장하고 있다.

12. 기타류

기타류는 유물정리시 類別로 분류가 불분명한 종류를 기타유물로 하여 창덕궁 소장 유물중 다른류의 유물보다 점수가 많은 유물이다.

역대 제왕들의 어필이나 훈유등을 돌에새긴 석제유물 100여점이 있고, 조선시대의 과학 문화재인 천상열차분유지도석각본을 비롯하여 18점의 과학문화재, 조선시대 화폐인 상평통보와 일본, 중국, 송나라 화폐등 1,751점, 궁중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색지·간주지·벽지·단자지·색봉투·백색한지봉투, 각종 방고전등 종이류 4,700여점, 활옷 수분을 비롯한 각종 수본 16점, 지폐원판·호조태환권원판이 있고 한방의 술에 있어 침을 놓을수 있는 자리를 정확히 표현한 침금동상, 각종 전각건물에 화마를 몰아내기 위하여 배치한 드무·말안장·등자·쌍용각보개·봉황각보개·신위용상·상여 부속품등이 있다.

材 質 別 分 類

類別 材質別	書畫	樂器	御寶冊	懸板	祭器	衣裳	彫刻	家具	陶磁器	函簿	武具	其他	計
纖維	210		1			2,309		8		347		5	2,878
紙	143		4					2				4,800	4,949
木	6	1	9	1,032	610	125	1,369	920		148	10	369	4,599
絹・紙	1					12					1		14
絹・竹						27		6					33
絹・金屬						26							26
竹			4		20			149		7	3		183
金屬		3	2		275	10	181	474		24	71	1,838	2,878
木皮		5											5
石	2	3			8	34	398	146	1			175	767
陶・土					592			21	2,985				3,598
骨角						8	1	7					16
琥珀						1							1
石膏												5	5
유리								2	11				13
양초								1					1
水晶							11	2					13
毛						2				7			9
달총						14							14
草						1		74		3			78
皮革						13				8	14	6	41
木・紙								5					5
雉尾										4			4
計	362	12	20	1,032	1,505	2,580	1,960	1,817	2,997	548	99	7,198	20,130

遺物 種類別 現況

類別	點數	內 容		類別	點數	內 容	
書畫	362	병풍 152	벽화 6	家具		칠보 74	염 87
		어진 7	벽장문 27			등 43	등롱 70
樂器	12	영정 35	가리개 39	家具		축대 17	석 72
		그림 19	기타 20			원반 56	문갑 14
御寶冊	20	적 5	금 1	家具		사각목판 50	금고 1
		고 5	편경 1			다식판 13	기타 676
懸板	1,032	책 6	서통 5	家具		인뒤옹이 84	
		유서 1	부협 1			삼인점 9	궁 3
衣裘	2,580	현관 435	주련 179	家具		사인점 3	목총 2
		편액 418				전어도 2	활 2
彫刻	1,960	의상 395	갑옷 9	家具		청룡도 2	도 8
		노리개 27	댕기 3			사인참사점 10	방패 2
家具	1,817	머구지 26	방석 6	家具		기타 56	
		보 122	대 33			은 122	사기 553
家具	1,817	관모 420	홍배 2	家具		유제 133	기타 41
		류소 71	홀 18			목제 608	
家具	1,817	등롱 58	화 22	家具		석제 4	
		끈 419	기타 949			백자 44	
家具	1,817	석인 320	목제자문 954	家具		주전자 8	와 89
		옥인 5	마경언해 119			접시 2,583	유리 10
家具	1,817	목인 89	식경판 11	家具		타구 4	대항아리 16
		유인 115	지회판 9			기타 287	
家具	1,817	철인 3	하향용제 28	家具		기 176	산 19
		낙인 27	마패 29			산 14	선 103
家具	1,817	유관장 5	기념장 2	家具		련 9	여 6
		목관장 2	석인·수정 84 ·재료			차 3	개 8
家具	1,817	입각자판문 12	기타 146	家具		사인교 11	기타 194
		농 15	장 56			평교자 5	
家具	1,817	선 11	함 113	家具		어필 39	상평통보 1,751
		의자 135	상자 141			용상 18	봉안장 12
家具	1,817	동경 30	연 59	家具		보개 4	기타 576
						평상 16	
				其他	7,198	명전 185	
						봉투 1,590	
						지 3,007	
				計			20,130

III. 遺物保存管理

1. 遺物管理

가) 遺物保管庫 整理

主要遺物이 集中管理되고 있는 煉瓦倉庫에는 60個의 保管藏 및 保管臺가 있는데 材質別로 分類, 管理하는데 있어서 保管藏이 不足함으로 前에 使用했던 廢品에 가까운 保管藏 2個를 改造하여 4段으로 칸막이를 設置하여 陶瓷器類 700餘點을 分散 整理하고 窓門을 가려 通風이 遮斷된 書畫類 保管臺 1個를 新設하여 窓門을 避하여 遺物庫를 밝게하였다.

舊璫源殿, 儀豐門, 熙政堂 倉庫에 雜多하게 散積保管되어있는 遺物을 類別, 材質別로 分類整理, 保管臺 및 保管藏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 煉瓦倉庫와 같이 整理整頓하였다.

나) 保管遺物 標識板 附着

各倉庫에 保管되어 있는 20,130點의 遺物을 保管藏別로 類別, 材質別로 再分類 整理하고 保管藏과 保管臺에 一連番號를 附與하고 아크릴標識板과 종이로 서식을 인쇄하여 個個遺物의 名稱, 遺物番號, 數量等を 記載하여 遺物에 附着하였다.

다) 包裝遺物 寫眞附着

書畫類, 衣裳類, 武具類等の 保管處理 一環으로 遺物을 방청지등으로 包裝하였는데 包裝을 解體하지않고도 實遺物의 形態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表識板에 遺物寫眞을 코팅하여 附着하였다.

라) 遺物全數調查

各 遺物庫에 保管된 個個遺物의 數量과 保存狀態等を 點檢하기 위하여 年1回 全數調查를 實施한다.

2. 遺物保存處理

가) 纖維質 保存處理

纖維質은 濕氣에 弱하기 때문에 濕氣가 없는 煉瓦倉庫 2층에 保管하고 藏속 濕氣를 除去하기 위하여 韓紙로 包裝해 保管하고 있었으나 접히는 부위의 毀損을 防止하기 위하여 專門家의 諮問을 받아 接折部位에 韓紙를 끼워 包裝해 오동나무 상자에 保管하고 있다.

나) 金屬類 保存處理

腐植防止를 위하여 武具類 38點을 방청지로 保存處理하고 文化財研究所에 의뢰 金屬類 23點을 科學的 保存處理를 하였다.

다) 유물폭로

纖維質, 紙類等の 遺物을 濕氣로부터 오는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快晴한 날씨를 택하여 그늘에서 通風을 實施하여 遺物의 損傷을 막도록 年1회이상 실시하고 있다.

라) 遺物保管庫 藥品撒布

遺物을 微生物 被害로부터 防止하기 위하여 藥品을 投入, 年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燻蒸殺菌處理는 遺物이 集中保管된 煉瓦倉庫의 舊璫原典에 隔年制로 건물을 피복하여 실시하고 있다.

3. 遺物補修

가) 書畫類 補修

所藏遺物中 書畫類의 屏風, 壁畫, 簇子 額子 등이 오랜기간으로 인하여 自然毀損되거나 배접등이 이완된 遺物 113點을 文化財研究所의 修理示方書에 의거 文化財修理技能保有者를 選定 補修하였다.

나) 木材類 補修

家具類 및 函簿類中 木材로 된 遺物에 대하여는 年次的인 補修計劃을 수립하여 1次年인 1985年 補修는 文化財研究所에서 추천한 專門委員 유문용이 精密調査를 實施하여 補修 가능한 遺物 232點中에서 木造殿, 熙政堂 등에 展示되었던 遺物 三層冊藏等 37點, 86년에는 三層籠等 48點, 87년에는 平床等 5點, 88년에는 초軒等 6點, 89년에는 華角函等 10點, 90년에는 紅色輦等 6點을 文化財專門委員 유문용이 보수대상 遺物選定에서부터 補修과정까지 諮問을 받아 실시하였다.

특히 遺物을 構成하고 있는 材質이 複合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各分野別 專門家の 補修指針과 諮問을 받아 文化財 기능보유자를 選定 補修하였다.

4. 資料蒐集

가) 彫刻類 實印冊子 發刊

彫刻類에는 御寶를 비롯하여 寶蘇堂印存王命으로 三品以上の 벼슬아치를 부를 때 姓名을 써서 使用하였던 名牌, 거리를 巡察할 때 차고 다니던 巡將牌, 王命을 받은 大小官員이 地方에 出場할 때 驛馬를 徵發使用하였던 馬牌等과 말에 關한 項目 100餘個에 그림을 押印彫刻한 馬經諺解板等 活字版이 있는데 印章 556點을 實印하여 2卷의 冊子를 製作하고 活字版 278點도 印本하여 5卷의 冊子를 發刊하였다.

나) 石製遺物拓本, 書帖製作

其他 遺物中 朝鮮時代 歷代諸王의 글을 돌에 새긴 石製類 111點을 拓本하여 4卷(御製御筆 2卷, 訓諭 1卷, 화마숙 1卷)의 書帖과 天象列次分野之圖石刻本筆을 拓本하여 簇子 2個, 額子 1個를 製作하여 重要的 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다) 懸板類 柱聯解釋 및 位置바로잡기 懸板類 266點中 171占의 柱聯을 調査 國譯하였으며 柱聯의 位置가 바뀐 151點의 柱聯位置를 바로 잡았다.

라) 遺物用語 解說

所藏遺物은 朝鮮朝 宮中에서 使用備置한 것으로 現在 開放되거나 貸與된 遺物以外에는 거의 遺物庫에 保管管理되고 있다.

昌德宮 所藏唯物은 名稱이 記載된 遺物 標識板을 附着하여 遺物에 對한 名稱은 쉽게 알 수 있으나 遺物名이 漢字나 古語로 되어있기 때문에 遺物用語를 알기 爲해서는 關係資料를 일일이 찾아야만 됨으로 이의 解消策을 一次的으로 昌德宮에 所藏된 遺物의 用語를 解說하여 遺物을 理解하는데 쉽게 알수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遺物用語對象은 昌德宮의 所藏遺物이 主種을 이루고 있으며 遺物用語를 찾아보면 用語解說自體에도 어려운 單語가 있어 그 單語도 찾아 740餘個의 遺物用語를 解說하여 資料로 活用하고 있다.

IV. 結語

궁중 유물 보존관리는 현상태에서 더 이상 변질 및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소장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 유물의 이상유무를 세밀히 조사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대비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現 遺物庫는 12종의 유물을 재질별로 완벽하게 보관하는데는 협소하므로 좀더 과학적인 보존관리를 하기위해서는 유물고 신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궁중유물에 관한 학술보고서가 저조한편인데 이를 위해서도 궁중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밀조사와 학술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